

FTA 넘어라...전략작목 육성 나선 지자체들

강진군 '쌀 대체' 연근 재배 확대

올 재배단지 18ha 조성
기술보급·유통전략 지원

강진군이 FTA 쌀시장 개방과 소비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쌀농업을 대체하기 위한 전략작목으로 식용 연근 확대 보급시책을 추진한다.

3일 강진군에 따르면 올해 연 재배사업에 첫 지원해 연 재배단지 18ha를 조성했으며, 재배농가에 대한 국내·외 선진 현장견학과 교육 등을 추진하고 있다. 군은 2018년까지 연 재배단지 100ha 조성을 목표로 연근 상품화시설 유치 및 연근 수확기 지원 등 각종 지원 정

책할 강화할 계획이다. 강진군이 연근 재배 지원을 확대하게 된 배경은 쌀시장 개방 등 유통환경 변화의 영향으로 쌀값이 급락하면서 농업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쌀 농업을 대체할 새로운 소득원의 발굴 및 보급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기 때문이다.

연근은 소비자의 웰빙 건강식품 선호 추세에 따라 매년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웰빙식을 선호하는 일본의 경우 연근 재배면적이 7000ha에 이른 반면 우리나라는 700ha에 불과하다.

우리나라 국민의 웰빙식품 소비증가와 인구수 등을 기준으로 판단할 경우 3000ha 정도가 적정 면적이라는 게 강

진군과 연근 재배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특히 연근은 벼보다 소득은 1.5배 정도 높고, 노동력은 절감된다는 점이 큰 강점으로 꼽힌다. 10a 기준으로 연근은 평균 77만4000원, 쌀은 48만6000원을 수익을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진군은 그동안 국내 선진 연 재배 지역인 김제시와 일본 이바라키, 구마모토 지역을 직접 방문하는 등 소득성과 유통환경·전망 등을 분석해 왔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앞으로 지속적인 교육과 지원을 통해 연 산업이 강진군의 대표적인 소득 효과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강진=남철희기자 chou@



강진군 선전면 금당리에서 강진산 첫 연근 수확이 한창이다.

장흥군 우량혈통 한우 분양 박차

정남진 육종단지 사육
송아지 26두 축산농가에

한우 고장인 장흥군이 본격적인 'FTA수입고기 시대'에 맞춰 우량혈통 한우에 분양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3일 장흥군에 따르면 지난 2013년 분양받은 총 84두의 우량혈통한우를 장흥군 관산읍 '정남진 장흥한우 육종단지'에서 사육하고 있다.

장흥군이 사육중인 우량혈통한우는 총남 서산에 있는 농협 '한우가축계량 사업소'에서 유전력을 평가받아 3~4

대 개량된 한우 중 경기도 안성 축협목장을 거쳐 분양받은 한우다.

군은 우량혈통 한우 84두에서 태어난 생후 6~7개월 송아지 41두 중 지역 축산농가에 지난달 17두를 분양한데 이어 최근 9두를 분양했다.

우량혈통한우는 유전력이 평가된 공란우 채란과정을 거친 우수 혈통 송아지로 혈통이 보존된 맞춤형 소수 정예군 관산읍 '정남진 장흥한우 육종단지'에서 사육하고 있다.

또 모든 육질면에서 1+ 이상 등급판정을 받아 국내 한우정육고기 중 최고 등급으로 평가받고 있다.

제해신 장흥군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본격적인 FTA수입고기 시대를 맞아 우리 축산 농가들이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유전력이 우수한 우량혈통한우 사육을 서둘러야 한다"면서 "앞으로는 정부 주도로 우량 송아지 생산 지원이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장흥군은 지난 2010년 18억원을 들여 관산을 남송리 일원 3만534㎡에 '정남진 장흥한우 육종단지'를 조성할 예정으로, 목초 신품종(IRG) 재종포 재배 등을 통한 공란우(10두), 경산우(58두), 육성우(3두), 송아지(20두)를 사육하고 있다. /장흥=김용기기자·중부취재본부장

강진 가우도 '힐링 관광 명소' 자리매김

'가고 싶은 섬' 선정 이후 인기
4월 이후 33만여명 다녀가

전남도가 '가고 싶은 섬'으로 선정한 강진 가우도가 초겨울 찬바람에도 주말·휴일이면 몰려드는 관광객의 발길이 줄을 잇고 있다.

3일 강진군에 따르면 휴일인 지난 28일부터 29일까지 이틀간 전국에서 관광객 7000여명이 가우도를 찾았다. 지난 4월 가우도 2곳에 무인계측기를 설치한 이후 이날까지 가우도 누적 관광객은 모두 33만 5000여명에 이른다.

특히 지난 28일에는 부산지역 산악회 회원 1500여명이 버스 35대에 나눠타고 강진 가우도 출렁다리와 '함께(海) 길'을 걸었다. 이날 회원들과 가우도를 찾은 여진태(47·부산시 북구 덕천동)씨는 "부담없이 바다와 섬, 숲을 감상하기에 딱 좋은 곳"이라며 "가족들과 다시 오고 싶다"고 했다.

또 다른 방문객은 "주차장이 좁아 불편한 것을 빼면 1시간 정도 트레킹을 하기에 최적의 웰빙 관광지"라고 만족감을 나타냈다. 가우도는 국내 최장 해상 보도교인 출렁다리를 갖추고 있어 도보로 방문이 가능한데다 섬을 끼고 도는 돌레길의 풍경이 입소문을 타면서 방문객이 급증하고 있는 추세다.



'가고 싶은 섬' 강진 가우도를 찾은 부산지역 산악회 회원들이 지난 28일 가우도 출렁다리를 건너고 있다. (강진군 제공)

강진군은 가우도 정상부에 조성중인 정자호정전망대와 공중하강 체험시설인 잘라인 설치가 완료되면 출렁다리와 함께 강진의 랜드마크이자 관광명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군은 오는 2017년까지 가우도 내에 테마길을 주제로 힐링가든과 슬로우 가든 조성 등을 통해 '향기나는 섬'으로 만들어 낼

계획이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가고 싶은 섬' 선정 이후 가우도를 찾는 관광객이 급증하고 있다"면서 "바다와 산을 함께 느껴볼 수 있는 생태섬답게 환경훼손을 최소화하고 관광객들이 힐링 관광을 즐길 수 있도록 손нат밋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강진=남철희기자 chou@

다산의 가족사랑 느껴보세요

다산기념관 내달까지 복제 하피첩 등 전시회

강진군 다산기념관이 다산 정약용의 유물인 하피첩을 전시한다.

다산기념관은 "하피첩 복제를 완료하고 내년 1월 31일까지 '다산의 가족사랑'이라는 주제로 특제전시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하피첩은 지난 9월 경매에 나온 뒤 7억 5000만원에 국립민속박물관에 낙찰됐다. 하피첩은 다산 정약용이 1810년 가을 강진 유배시절 부인 홍씨가 시집을 올 때 입었던 치마를 부쳐오자 치마를 재단해 만든 서첩이다.

두 아들에게 교훈이 될 만한 구절을 직접 쓴 것으로 자식을 생각하는 아버지 다산의 따뜻한 마음을 엿볼 수 있는 귀중한 사료로 가치를 인정받아 지난 2010년 보물 1683-2호로 지정됐다.

이번 특제전시에서는 하피첩을 비롯한 치마로 제작된 시집가는 딸에게 준 '매화병제도', 다산이 잃어버렸다고 애석해한 '거가사본', 아버지에 대한 효심이 묻어나고 형제간



다산의 하피첩

의 우애를 확인할 수 있는 '간찰' 등 인간다산을 느낄 수 있는 유물들로 가득하다.

최종열 다산기념관장은 "이번 전시는 대학자 다산보다 아버지, 남편, 아들, 동생 등 평범한 인간 다산에 초점을 두고 있다"며 "가족 해체가 진행되는 현대사회에 의미 있는 전시가 될 것"이라고 기획 의도를 밝혔다. 전시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다산기념관 전시기획팀(061-430-3916)으로 문의하면 된다. /강진=남철희기자 chou@

벼·찰옥수수 보급종 신청

강진군 읍면상담소서 접수

강진군은 3일 "2016년도 벼와 찰옥수수 보급종을 농업기술센터 읍면농업인상담소를 통해 신청 받는다"고 밝혔다.

강진군에 배정된 물량은 벼 보급종인 황금누리 65톤, 새일미 40톤, 새누리 37톤, 동진찰 25톤, 운광 21.4톤, 미품 5톤, 일미 2톤으로 신청기간은 오는 24일까지다.

이후 전남도내 남은 품종에 한해 오는 28일부터 내년 1월 8일까지 선착순 신청을 받는다. 공급단위는 20kg이며 공급가격은 내년 1월 공고할 예정이며, 내년 1월 10일부터 3월 31일까지 지역 농협을 통해 공급된다.

찰옥수수는 미백2호, 미흑찰, 흑점2호 등 3품종을 신청받는다. 전남도에는 시·군에 공급량이 배정됐으나 올해는 전국 공급량이 전년 60톤보다 두 배 이상 많은 126톤으로 전국단위로 신청을 받는다. 전체 물량은 미백2호 80톤, 미흑찰 40톤, 흑점2호 6톤으로 신청기간은 오는 9일까지다. /강진=남철희기자 chou@

투데이 경매 부동산 경공매 추천물건

광주 남구 주월동 대지
남구청에서 봉선동 방향 대로변 상권우수 신축 건물 부지로 적합 병원 도시형생활주택 추천
대지 684㎡ 건물 295㎡
감정가 16억 8천
최저가 11억 8천

광주 서구 마북동 주유소부지
광주아울렛 인근위치 투자적합
대지 1132㎡ 건물 316㎡
감정가 9억 9천
최저가 6억 9천

광주 광산구 옥동 대지
평동산단 교차로 사거리 코너 평동역 인근 위치
대지 980㎡
감정가 8억 7천
최저가 8억 7천

광주 광산구 산정동 대지
현 운전 면허 연습장
대지 6655㎡ 건물 362㎡
감정가 27억 6천
최저가 19억 3천

광주 광산구 월계동 상가건물
지상 3층건물 임대료 1천만가
대지 656㎡ 건물 1554㎡
감정가 18억 4천
매매가 15억

투데이옥션 이현석
010-9963-6345

빌려주고 못 받은 돈 회수 해 드립니다.

(금융위협회 99-7호)

세일신용정보(주)는 국내 각 금융권을 대표하는 새마을금고연합회, 상생카드, 산은캐피탈, 한국캐피탈, 전북은행이 주주로 참여한 믿을 수 있는 회사입니다.

- 차용증,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뚜렷한 대안이 없는 경우
- 채무자가 타인명의로 재산을 빼돌린 경우
- 강제집행 등 법 조치를 하고 싶는데 채무자의 재산내역을 알지 못하는 경우
- 채무자를 상대로 법적 조치를 해야 할 때
 - 가압류/소송/집행까지
 - 전담 법무사와 Non-stop 서비스
- 민사채권, 물품대금, 공사대금, 미수금 등

● 채권회수는 타이밍 싸움입니다.
● 결정을 미루는 사이 채무자는 재산이전, 폐업, 소재불명으로 이어집니다.
● 빠른결정만이 소중한 재산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 재산조회비용 無 ☑ 착수금 無

영업사원 모집

대표전화: 062) 531-5990 010-2069-5958

세일신용정보(주)

지리산 노블랜드 실버타운

회사 보유분 매각

공급 가격

93㎡ [89,600,000원
] [용자 5,000만원

60㎡ [57,600,000원
] [용자 3,000만원

지리산, 섬진강, 백운천 그리고 힐링
전남 구례군 간전면 운천리 453번지

관리회사 (주)노블랜드 호텔
분양회사 중개법인 한국토지경매주식회사

1522-3396

마음의 소리를 듣고
고객의 입장에서 공감하며
전문성으로 만족스런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서명심 변호사입니다.

형사
민사
가사
행정

[사기·성범죄·교통사고
이혼·재산분할·위자료
대여금·공사대금·손해배상
보험금 등 각종 금융사건]

법률사무소 名家 변호사 서명심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로 70, 동산빌딩 1층(법원 버스정류소)
대표전화 062)227-7223 팩스 062)227-7224